



예금취급기관 가계대출 증가폭 확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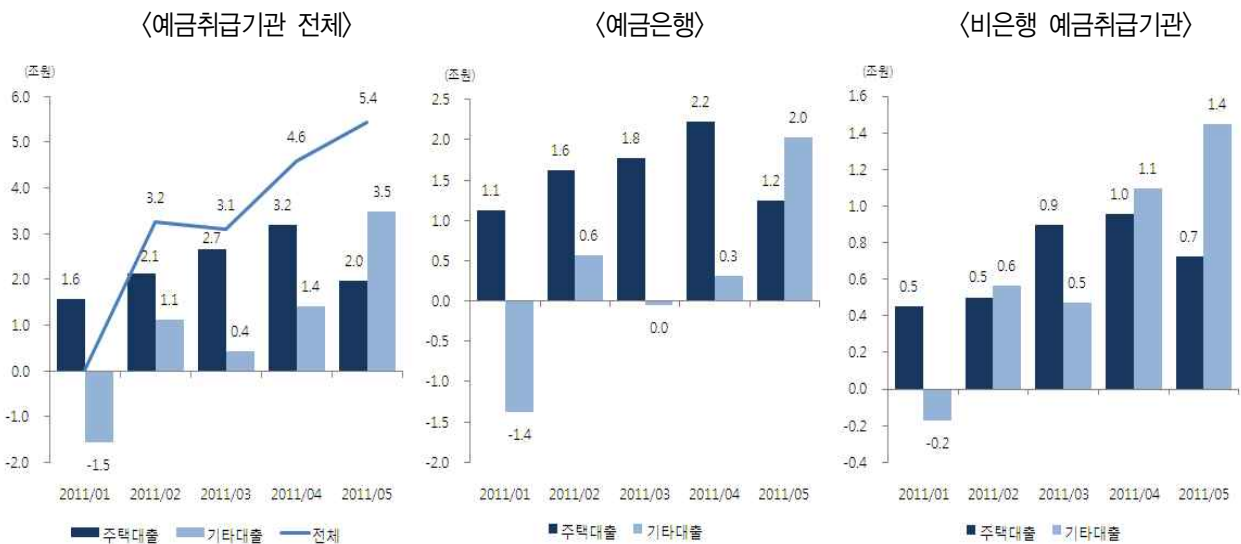
최 원 선임연구원

■ 한은에 따르면 2011년 5월 중 예금취급기관*의 가계대출 전월대비 증가액이 5조 4,386억 원(4월 중 4조 5,893억 원)으로 5개월 만에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함.

- 5월 중 예금은행 가계대출 전월대비 증가액은 주택담보대출의 전월대비 증가폭 축소에도 불구하고 마이너스통장을 포함한 기타대출 증가폭 확대로 3조 2,662억 원을 기록함.
- 5월 중 비은행예금취급기관 가계대출 전월대비 증가액도 기타대출 전월대비 증가폭 확대로 2조 1,724억 원을 기록함.

* 예금취급기관이란 예금은행 및 비은행예금취급기관(상호저축은행, 신용협동조합, 새마을금고, 상호금융, 신탁 및 우체국예금 계정)을 의미함.

〈그림 1〉 예금취급기관 가계대출 전월대비 증가액



자료: 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

■ 일부 전문가들은 가계부채 문제 해결을 위한 다양한 대책에도 불구하고 기타대출을 중심으로 한 가계대출 증가세가 둔화되지 않고 있다고 우려하는 반면, 정부는 시차를 두고 정책 효과가 나타날 것이라고 확신함.

- 금리상승, 부동산 시장 침체, 정부의 '가계부채 연착륙 종합대책' 등으로 주택담보대출 증가세가 둔화되었으나, 마이너스통장 대출을 받거나 집을 담보로 생활자금을 빌리는 소위 '생계형 대출'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
- 하지만 정부는 5월의 경우 가정의 달로 인한 잦은 행사에 따라 기타대출이 증가하는 계절성이 있어 이를 감안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하면서 향후 정부의 가계대출 안정화에 대한 의지가 확고한 만큼 빠른 시일 내에 가계부채 해결대책의 가시적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전망함.

(2011년 5월 중 예금취급기관 가계대출, 한은, 7/16)